

## 業界의 消息通으로서 役割을 期待

전자공업진흥회의 「電子振興」創刊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電子振興誌 發刊을 위하여 애쓰신 電子工業振興會會長 및 關係諸位의 노고에 致賀를 드립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韓國의 電子産業은 '80年 12月 1日부터 電子産業의 꽃이라고 하는 컬러TV 放映을 시작함으로써 세계 102번째로 컬러TV 放映國이되어 單色에서 컬러文化時代로 移行하는 새로운 里程標를 이룬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1958年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 생산을 시작으로 '60年代 後半期에 自動電話器 및 Capacitor를 生産하게 되어 本格的인 電子工業의 生産體制를 갖춘 이래 每年 刮目할 만한 成長을 거듭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69年 電子工業振興法의 制定後 10個星霜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電子工業은 産業革新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해 왔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時代를 開拓할 새로운 産業의 開發成長은 電子工業이 主導해 나갈 것이 明若觀火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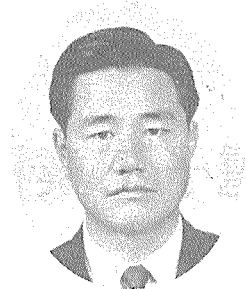
電子工業의 發展過程은 過去 10年間 生産 29倍, 輸出 32倍라는 놀라운 成長을 이룩하여 세계 10位의 電子工業國으로 浮上하였습니다. 그러나 世界는 이란·이라크 交戰과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 등 政治的인 混亂과 産油國들의 石油武器化 등 經濟的인 混亂으로 先進諸國은 보다 貿易障壁을 強化하여 自國의 利益 防禦에

급급하고 있는 實情으로 低開發國 및 開發途上國들의 進出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편 國內的으로도 政治的인 混亂과 經濟的인 沈滯를 면치 못하다가 다행히 強力한 領導力에 의한 政治的 安定과 이에 따른 果敢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制度的 改革과 革新으로 계속 바닥세를 持續하고 있던 經濟指標도 이제 미미하나마 上向勢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 昨今의 實情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갈 수록 深化되어 가는 國際競爭에서의 優位性 確保와 持續的인 成長을 위하여 여러가지 課題와 問題點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電子工業은 技術革新面에서 결코 만족할 만한 狀況에 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先進電子工業國의 競爭末期나 衰退期에 있는 技術을 導入, 使用하고 있거나 아니면 外國 資本이나 技術投資의 製品이 大宗을 이루고 있어 自體의 技術開發은 至極히 부진하여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어 獨創的 開發技術에 依한 製品生産은 미미한 實情입니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第1次 석유波動後 1975年 까지만 하여도 日本의 電子業界에서는 韓國의 追跡을 몹시 우려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우리의 각별한 노력없이 는 追跡이 遼遠한 현실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構造的 高度化를



株式會社 韓國마벨  
代表理事 朴 正 瀾

기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즉 生産面에서 電子工業의 産業比重을 보면 家庭用機器 41.9%, 産業用機器 9.7%, 電子部品 48.4% 등으로 産業用機器의 比重이 낮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째, 土着的인 電子工業의 發展을 위한 電子部品工業의 育成을 위한 韓國電子工業振興會등 有関機關의 活動이 極히 微微하다는 것은 저만의 유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現象은 電子工業振興會의 財源이 一部 Set Maker 에 편중되어 있는 運營上의 矛盾에서 基因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事實로서 이를 再編成, 加入會員社 全體의 利益을 代辯할 수 있도록 運營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電子工業育成策의 未洽으로 一部 部品業界는 瀕死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도 Set Maker 一部에서는 外國의 輸入製品에 대한 選好度에만 置重한 나머지 우리나라 部品業界의 育成에는 관심을 갖고 않고 있으며 雪上加霜으로 인접국인 日本의 大 Maker의 關係者는 물론 우리나라 業界의 一部 人士들도 韓國市場의 開發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는 한심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電子工業界는 持續的인 輸出增大를 위하여 導入된 技術의 消化, 改善을 통하여 技術革新을 이룩함과 아울러 高度의 技術集約的 製品生産으로 轉換해야 함은 물론 또한

새로운 情報産業을 이끌어 가면서 産業革新을 主導해야 할 막중한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電子工業의 安定的 發展을 위해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電子部品工業의 育成을 위해 官民合同은 물론 業界 全體가 한 덩어리가 되어,

- ① 技術導入 및 原資材와 生産設備의 導入이 特定 國家에 편중되어 不利한 條件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多邊化하여야 할 것이며,
- ② 部品の 國産化 提高를 위하여 化工, 機械金屬과 같은 關聯産業分野에 대한 支援 및 育成을 통한 素材部品の 育成,
- ③ 技術蓄積을 위한 부단한 技術開發의 自發的인 計劃과 적극적인 參與.
- ④ 關稅制度 支援金融 등 支援体制의 制度的 裝置가 課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컬러TV 放映과 더불어 韓國電子工業은 또 다른 里程碑를 向하여 힘찬 巨步를 시작하였습니다. 轉換期의 電子工業의 伴侶者로서 電子工業振興을 圖謀하기 위한 月刊「電子振興」은 業界의 代辯者로서 政府와의 橋梁役割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물론 産·學協同을 통한 技術情報의 交流에 대한 案內者로서 또한 業界의 消息通으로서 앞으로의 活動이 크게 期待됩니다.

끝으로 月刊「電子振興」의 創刊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앞날의 무궁한 번영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